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조형성과 디자인 요소

유현정

동덕여자 대학교 패션전문 대학원 강사

Design Factor and Formative Characteristic on Korean Aesthetic in Fashion

Hyun-Jung Ryu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9. 11. 15. 접수; 2009. 12. 21. 수정; 2009. 12. 28.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understanding of Korean fashion image by studying of design factor and formative characteristic.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the study of academic literatures as well as practical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about actual works.

The summary of this study's results is like followings.

First, Perspectives seeing formative characteristic on Korean fashion image are Shape with a line, color, material, pattern, accessories.

Second, Design factors deciding Korean fashion image are pattern, then in order of shape, color, material, accessories.

Third, In results on design factor deciding Korean fashion image, when fashion designers focus on pattern, pattern is focused on without regard for other design factor. But color and material are accompanied by other design factor in expressing Korean fashion image.

As fashion design point expressing Korean astetic, use of pattern is minimized other design factor, color and material are used with other design factor, then Korean fashion image will come out more than other time else.

If We develop Korean fashion design to concentrate on shape and pattern, Korean fashion culture will be known to world people and beautiful value of Korean fashion will be handed effectively.

Key Words: Design factor(디자인 요소), Formative characteristic(조형성), Korean fashion(한국적 패션)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Ryu

Tel. +82-10-2871-0472, Fax. +82-41-850-8301

E-mail : lily2067@hanmail.net

I. 서론

1960년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현대인들은 정보 통신 기술에 편승하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세계화(globalism) 시대를 부지불식간에 맞이하게 되었다. 점차 가속화되어가는 세계화의 이면에는 자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크게 달라지게 하였다. 20C 중반까지 세계화는 서구화와 동일한 의미로서 서구의 평가 잣대로 모든 문화를 평가해온 반면, 20C 후반부터는 차차 다원주의의 맥락에서 수평구조로서 타문화를 평가하는 시각이 확대되었다. 세뮤얼 헌팅턴(Huntington, Samuel)의 저서 『Foreign Affairs』에서 21C를 향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승된 고유문화를 거처에 두고 참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으며,¹⁾ 진정한 세계화의 추구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²⁾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화(localism)와 세계화는 21C를 끌고 나갈 거대한 두개의 물줄기인 것이다.

1990년대부터 한국 패션계도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한국 패션의 위상을 높이며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한국패션이 서양복식을 바탕으로 두고 세계무대에 등장한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이미지 작품들이 비단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구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 볼 때,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가 어떠한 디자인 조형요소들에 의해 한국미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되었다. 또한 한국적 패션의 정체성에 관한 학술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본 연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었다.

최근 패션의 경향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적 연구 범위는 1990 SS부터 2009 SS에 한하며, 국내외 패션전문저널, 패션 사이트, 신문, 잡지, 패션전문서적, 학위논문, 디자이너들의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여성복 작품들 중 ‘한국’, ‘한국적’, ‘한국의’ 용어와 ‘패션’, ‘복식’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 기사화 되거나 출판된 작품들로 한정

하였다. 실증적 연구의 방법은 현직 패션 디자이너 6명과 본인을 포함한 패션디자인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의 4인,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조사를 통해 각각의 작품들에서 한국미의 조형성을 지니는 주요 디자인 요소들을 평가하도록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조형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으로 디자인 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시각으로서 실증적 고찰을 통해 한국미를 지닌 패션에서 강조하여 전달하고자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살펴본다. 한국미를 지닌 패션을 전개하는데 지침서의 역할과 기초 자료가 되어 한국 패션의 세계화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II. 한국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조형성

1. 한국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조형성을 보는 시각

조형성은 조형 예술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³⁾으로서 복식과 패션⁴⁾의 조형성은 외적 형식을 빌려 내적 가치를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⁵⁾ 외적 형식에 해당하는 특성인 디자인의 요소들과 내적인 의미의 특성인 내재성으로 크게 구분한다. 본 연구는 외적인 특성인 조형성을 지칭한 것이므로 한국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조형성을 디자인 요소들의 분석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미를 표현한 패션만의 독특한 조형성을 추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들로부터 복식과 패션을 바라보는 조형성의 시각들을 우선 살펴보았다.

한국적 복식을 보는 조형성을 살펴보면 최세완⁶⁾은 형태, 색채, 재질로 보았으며, 이진민⁷⁾은 형식, 문양, 색채로, 김인경⁸⁾은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식으로, 김민지⁹⁾는 형태, 색채, 소재, 장식무늬로 보았다. 일반적 복식의 조형성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은영¹⁰⁾은 선, 색채, 재질 혹은 구조적 디자인, 장식적 디자인, 무늬로 보았으며, ML. Davis¹¹⁾는 선, 공간, 형, 빛, 색채, 재질, 무늬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호정¹²⁾은 선, 형태,

<표 1> 복식 조형성의 기준이 되는 디자인 요소

	연구자	디자인 요소	연구자의 조형성 기준	
한국적 복식을 보는 시각	최세완	형태, 색채, 재질		형태
	이진민	형식, 문양, 색채		색채
	김인경	형태, 색채, 소재, 문양과 장식		
	김민자	형태, 색채, 소재, 장식무늬		
일반적 복식을 보는 시각	이은영	선, 색채, 재질		소재
		구조적 디자인, 장식적 디자인, 무늬		
	ML. Davis	선, 공간, 형, 빛, 색채, 재질, 무늬		문양
	이호정	선,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최호정	형태, 문양, 장신구		
	유현정	형태, 색채, 소재, 장식,	액세서리	
	권하진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식,		
고현진	선과 형, 색, 재질, 디테일, 액세서리			

색채, 소재, 문양으로, 최호정¹³⁾은 형식, 문양, 장신구로 유현정¹⁴⁾은 형태, 색채, 소재, 장식, 권하진¹⁵⁾은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장식으로, 고현진¹⁶⁾은 선과 형, 색, 재질, 디테일, 액세서리로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한국적 복식을 바라보는 조형성과 일반적 복식을 보는 조형성 간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복식이나 일반적인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고, 패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시적인 기준을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위의 패션의 조형성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공통적 기준들을 토대로 앞으로 전개할 조형성의 기준들을 디자인 요소들로부터 정립하면 선을 포함한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액세서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2.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성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조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먼저 고찰하는 것이 순차적이라 사료되어 위의 정립된 다섯 가지 기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한국 전통복식은 개화기 이전의 한국인들이 입었던 한국복식을 통칭하나. 학문적으로는

주로 상대 시대부터 개화기까지의 복식은 한국의 복식이라 칭하며, 한국의 전통복식은 근대와 현대복식에 가장 영향을 주고, 한국인들에게 전통문화로서 모태가 되는 시기인 조선후기부터 개화기 이전의 복식을 의미하고¹⁷⁾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형태

형태는 점, 선, 면, 입체의 전개 과정을 통해 공간을 규정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1차원인 선, 2차원의 면과 3차원의 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겠다. 복식의 형태는 크게 외형에 대한 실루엣, 내부 영역에 대한 내부형, 구조선(seam)에 의한 구조형¹⁸⁾으로 볼 수 있다.

실루엣을 살펴보면 허리를 신체의 가장 중요한 수평선으로 인식했던 서양 복식에 비해 한국 전통복식들은 허리와 가슴사이의 윤곽을 뚜렷히 하지 않고, 주름, 착장법, 속옷 등으로 완만한 곡선의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 2>처럼 허리선의 자유로움을 주면서 수직적인 유연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¹⁹⁾

저고리, 치마를 위주로 내부형을 살펴보면 <그림 1, 2>에서 볼 수 있듯이 저고리는 가장

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선을 포함하고 있다. 길의 도련, 소매 배래, 섯의 만곡선과 깃의 둥근코 등으로 전체적인 곡선미는 평면인 듯 보이나 인체의 입체미를 인정하고 있는 자연주의관을 잘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곡선들은 깃의 V네크 라인과 과도한 비대칭의 고름에서 강한 직선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치마는 치마폭과 허리 말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평면적인 치마에 잡혀 있는 무수한 작은 주름들과 열려진 뒷트임이 중첩되어 가변적 형태미의 진수를 나타낸다. 허리말기는 이와 대조적으로 가슴을 타이트하게 조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

구조형은 봉재선으로 나타나는 선으로서 한국복식의 가장 큰 특징인 평면성과 시접이 창구명을 통해 걸감과 안감사이로 숨어 있는 초공간성을 들 수 있다.

2) 색채

‘백의 민족’이라 할 만큼 한국 복식의 기본적인 색상은 흰색이다. 자연주의 사상의 발로에서 무염의 색인 소색도 평민의 옷이나 상제(喪祭)의 복식에서 잘 나타나 소박함과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흰색이나 소색 외에 유색이 강조색으로 나타난 예로 색동을 들 수 있는데, 여러 색이 함께 사용되더라도 모든 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흰색이 항상 함께함을 볼 수 있다. 유색끼리의 사용에서도 명도 높은 원색은 아이들 옷의 색동이나 <그림 2>처럼 혼례복 등 특별한 경우에 입었고, 평상복들은 천연 염색의 톤을 유

지하여 자연스런 색채 조화도를 높였으며, 무채색끼리의 조화는 유교적 상징을 표현한다고 하겠다. 또한 구한말 시기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태극기의 사용으로부터 그에 사용된 미묘한 적색, 청색, 백색, 흑색의 조화도 한국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3) 소재

한국 전통 복식에서 가장 애용되었던 소재들을 살펴보면 무명, 삼베, 명주, 모시 등이 있다. 무명과 삼베는 소색이 가장 잘 표현된 소재로 천연적, 자연적, 서민적인 미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삼베는 특유의 뻣뻣함으로 거칠고 투박한 촉감으로 촉각성을 나타낸다. 명주는 특유의 광택과 유연함으로 곡선적 실루엣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고급스럽고 정교함으로 양반의 고급 취향에 부합되어 상류층에 애용되었던 고급소재이다. 모시 또한 고운 결에 의한 독특한 투명성과 시각적 가벼움으로 은은함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4) 문양

문양은 무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모티프와 패턴으로 구분한다.²⁰⁾ 주로 사용되는 모티프들은 용, 봉황, 십장생, 거북, 박쥐, 사군자, 연꽃, 구름, 파도, 문자 등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문양들과 조각보나 태극처럼 기하학적 모티프의 문양도 있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1> 신윤복의 미인도. Daum.com. 2010.1.8.

<그림 3> 활옷.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p.273.

<그림 5> 방한모. 신난숙 (1990). 현대복식구성. p.29.

<그림 2> 국말혼례복 고종. 한복 입는 날 3주년기념서 p.81.

<그림 4> 다복자. 임영주 (2004). 한국의 전통문양. p.204.

활옷에는 위의 자연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길흉화복이다. 옷의 가장자리에 <그림 4>처럼 복(福)이나 수(壽)로써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규칙적인 패턴일 때는 주로 직조, 금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섬세하고 은은하지만 복잡하고 불명확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불규칙한 패턴일 때는 주로 자수의 방법이 이용되며, 다양한 색채를 포함한 내러티브(narrative)²¹⁾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5) 액세서리

한국 복식의 대표적인 액세서리로는 아얌, 조바위, 남바위, 풍차, 평천관, 갓, 너울 등등의 모자류가 있다. <그림 5>의 남성모는 아얌이며, 여성모는 풍차, 아이의 모는 굴레이다. 이외에도 비녀, 뒤꽂이, 귀이개, 가चे 등의 머리장식품과 향낭, 노리개, 주머니, 신발, 부채 등등이 있다.

III. 2000년 이후 한국적 패션의 조형성과 디자인 요소의 실증적 연구

1. 전문가 집단조사의 기준

최근 패션의 경향을 연구하기 위해 시간적 연구 범위는 1990 SS 이후부터 2009 SS에 한하며, 국내외 패션전문저널, 패션 사이트, 신문, 잡지, 패션전문서적, 학위논문, 디자이너들의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여성복 작품들 중 ‘한국’, ‘한국적’, ‘한국의’ 용어와 ‘패션’, ‘복식’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 기사화 되거나 출판된 작품들 118 점을 추출하였다. 연구자는 패션의 조형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현직 패션 디자이너 6명과 본인을 포함한 패션디자인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의 4인,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게 위의 자료들을 배포하여 어느 디자인 요소에 의해 한국미가 부각되어 전해지는가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집단의 90% 이상의 일치한 자료만을 추출한 결과 79점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단, 앞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다섯 가지 디자인 요소들에 기준하여, 원칙적으로는 작품 당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게하나, 부득이 판단이 모호할 때만 복수항목으로 2개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작가의 경향이 연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시근에 한 작가의 작품은 2점까지만 허용하였다.

2. 패션에 나타난 한국미의 디자인 요소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한국 디자이너들 이영희, 이상봉, 진태옥, 설윤희, 이신우, 안윤정, 박윤수, 이영주, 이정우, 강기옥, 김선자, 박윤정 등 12명의 작품들이 선택되었다. 최종 선택된 각각의 작품들에서 한국미를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한 구체적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디자이너들 중 가장 한국미를 나타내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한 디자이너들은 이영희, 이상봉, 진태옥, 설윤희의 4인 이었으며, 이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이영희는 형태로, 진태옥은 소재와 색으로, 이상봉과 설윤희는 문양으로써 한국미를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8인의 디자이너들과 앞의 4인들의 작품들을 통합하여 한국미를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미를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들 중 문양과 형태의 항목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그 뒤로 색채, 소재, 액세서리가 따르고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총 79점이나 디자인 요소들을 선택함에 있어 한 작품 당 복수선

<표 2> 한국미를 나타내는 패션 디자인 요소들의 분석결과

구분	한국미를 나타내는 작품의 디자인 요소 (총 79점)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액세서리
빈도수(%)	42(31.6%)	23(17.2%)	18(13.5%)	46(34.5%)	4(3.0%)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6〉 설운형 '91/SS, 김민자(2009). 한국적패션디자인의 제다움찾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97.

〈그림 7〉 진태옥 '93/SS, 김윤희((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7.

〈그림 8〉 설운형 '95/SS, 김윤희((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8.

〈그림 9〉 진태옥 '95/SS, 유현정(2008). 문양의 이미지 포지셔닝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95.

〈그림 10〉 이영희 '96, '97/FW, 김민자(2009). 한국적패션디자인의 제다움찾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97.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1〉 박운정 '96 '97/FW, 보그코리아, 97.12. p.107.

〈그림 13〉 김선자 '00 '01/FW, 보그코리아, 01.11. p.182.

〈그림 15〉 이영주 '06/SS, 서울신문. 09.2.26. p.18.

〈그림 12〉 설운형 '98 '99/FW, 보그코리아, 99.1. p.123.

〈그림 14〉 박운수 '01 '02/FW, 보그코리아, 01.6. p.136.

택이 가능하였기에 총합은 79 이상의 결과가 되었다.

〈그림 6, 10, 13, 18〉은 형태 위주의 디자인 요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그림 6〉은 저고리의 앞섶을 확대한 형태이고, 〈그림 10〉은 저고리의 소매배래의 선을 그대로 따왔다. 〈그림 13〉은 여성 치마의 허리말기와 풍성한 주름이 잡힌 치마의 형태와 뒤트임을 응용하여 열린 형태를 재구성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그림 18〉은 치마의 조끼허리와 허리주름으로 향아리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19〉는 색 위주의 디자인 요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

보면 〈그림 7〉은 갈옷이나 황토 염색을 한 듯 자연 갈색의 색을, 〈그림 19〉는 흰색과 소색을 나타내어 자연색감으로 한국미를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7, 13, 19〉는 소재 위주의 디자인 요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그림 7〉은 무명의 느낌을, 〈그림 13〉은 삼베의 느낌을, 〈그림 19〉는 모시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 9, 11, 12, 15, 16, 17, 20〉은 문양 위주의 디자인 요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그림 8〉은 떡살문양을, 〈그림 9〉는 활옷에 사용되던 자수 문양을, 〈그림 11〉은 고구려 벽화를, 〈그림 12〉는 화충도를, 〈그림 15〉는 십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그림 16〉 이상봉 '06/SS, liesangbong.com. 검색일, 09.11.2. 〈그림 17〉 이상봉 '08 '09/FW, liesangbong.com. 검색일, 09.11.2.
 〈그림 18〉 이영희 '07 '08/FW, ifp.co.kr. 검색일, 09.10.20. 〈그림 19〉 진태욱 '08/SS, firstview.com 검색일, 09.10.23.
 〈그림 20〉 이상봉 '09/SS, Сезони моди 09.6.

장생을, <그림 16>은 한글을, <그림 17>은 연꽃 문양을, <그림 20>은 신윤복의 '미인도'로써 한국의 정서를 문양으로 발전시켜 표현하였다. <그림 10, 14>는 장신구 위주의 디자인 요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그림 10>은 풍차를, <그림 14>는 한국 여인들의 가채와 비녀, 그리고 단청에 나타난 색을 스카프에 옮겨 전통적인 액세서리를 이용해 한국미를 재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현 시기에 한국미를 나타낸 패션이라는 것은 한국 전통복식에 나타난 디자인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과 재구성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앞서 정립한 5가지의 디자인 요소들로부터 한국미를 표현한 패션을 바라보았을 때 문양과 형태가 압도적으로 한국미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장신구의 사용은 미비하였다. 또한 문양이 강조점이 되어 한국미를 표현 할 때는 타 디자인 요소와 복수항목으로 선택되는 예가 적은 것으로부터 문양 강조일 경우 문양의 디자인 요소에 집중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색채와 소재는 복수항목으로 선택되는 예가 빈번한 것으로 동반 강조로써 한국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한국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디자인 요소들은 문양과 형태 항목에 집중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재와 색채는 상호동반의 표현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서구시각의 획일적인 미적 기준이 20C 후반에 들어 서서히 와해되면서 자국의 문화가치를 되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각 국가별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자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국가 차원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에 문화 정체성은 곧 최대의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의 패션이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하면서 한국적 패션 이미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패션의 조형적 특징 중 외적인 특성인 형식미를 살펴보았으며, 이들의 디자인 요소 중 어느 요소가 한국미를 표현하는가에 무게를 실어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미를 표현하는 패션의 조형성을 보는 시각으로는 선을 포함한 형태, 색채, 소재, 문양, 액세서리 등 다섯 가지로 기준으로 정립되었다.

둘째,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한국미를 표현하는 패션의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문양과 형태 항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색채, 소재, 액세서리 항목이 뒤를 이었다.

셋째, 한국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디자인 요소들 중 문양이 강조점이 되어 한국미를 부각시킬 경우 타 디자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문양의 디자

인 요소에만 집중적으로 강조되어야 효과적인 한국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소재는 단독으로 강조점이 되기보다 색채나 형태가 동반되는 빈도가 높았고, 색채 또한 소재나 형태와 동반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소재와 색채의 디자인 요소들은 함께 강조점으로서 조화를 이루어 낼 때 한국미를 효과적으로 표현되어 전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미를 나타내는 패션의 디자인 요소들은 문양과 형태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부각되어 반영하고 있으므로 문양과 형태 중심의 조형성 전개가 한국미의 패션을 세계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한국미를 표현한 패션의 강조점으로 문양의 사용은 타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사용하고, 특히 소재와 색채는 함께 강조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실무에서 이 점을 유념하여 활용한다면 한국패션의 미를 세계화하는데 진일보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미를 표현하는 패션의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결과 문양과 형태가 한국미를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미를 나타낼 수 있는 문양을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텍스타일을 개발한다면, 보다 쉽게 한국미를 표현하는 패션상품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적 텍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Huntington, Samuel (1996). *Foreign Affair*, 이희재 역 (1996).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pp.69~102.
- 2) 김종범 (1996). *한 눈에 보는 21세기 트렌드*. 서울: 백산서당, pp.302~307.
- 3) 자료검색일. 2010.1.8., 자료출처. www. Daum.com. 검색어 '조형성'.
- 4) Roach-Higgins, Mary Ellen & Eicher, Joanne B. (1992). *Dress and Identity*. *CTRJ*, 10(4), pp.1~3. 복식은 인체를 감싸거나 장신구, 화장, 향기까지 포함한 광범위 개념이며, 패션은 생성, 성장, 소멸의 사이클을 가진 유행현상이다.
- 5)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1*. 서울: 교문사, p.146.
- 6) 최세완 (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6~47.
- 7) 이진민 (2005). 한·일 여성복식의 현대화에 나타난 미적특성.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34~36.
- 8) 김인경 (1998).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38, pp.236~240.
- 9)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97~103.
- 10) 이은영 (1997).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pp.85~202, 263~307.
- 11)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외 역 (1990). *복식의 시각 디자인*. 서울: 경춘사, pp.63~257.
- 12) 이호정 (2002).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p.17~142.
- 13) 최호정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글로벌, 구조적 하이브리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68~169.
- 14) 유현정 (2001). 양말과 스타킹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3.
- 15) 권하진 (2005). 아시아인 에스닉룩의 조형성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86.
- 16) 고현진 (2003). 복식에 표현된 엘레강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35~136, pp.158~160.
- 17)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 18) 김민자 (2004). *Op. cit.*, pp.149~153.

- 19) 최세완 (1992). *Op. cit.*, p.21.
- 20) 유현정(2008). 문양의 이미지 포지셔닝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9~10.
- 21) *Ibid.*, p.97. 내러티브(narrative)문양은 이야기가 될 만한 한 장면을 이루고 있는 문양이다.